

## 구약성경의 효용과 한계



“이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구약성경이 왜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는 구약성경이 존재해야 할 정당성은 단 두 가지뿐이다. 첫째, 적절히 신약성경과의 타협을 통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십일조의 헌금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 통치의 편익:

“테오도시우스 1세(기원후 347~395, 379~395 재위)는 이교 숭배를 금지하고 삼위일체를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교를 381년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공식 종교로 지정한다.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권력의 종교였다.” 2)

“불행히도 초기 기독교도들은 낮은 문명 단계의 관념을 반영하며 야만으로 가득 찬 유대 문서들을 자신들의 경전에 포함시켰다. 구약의 계시를 맹신하는 경건한 독자로서는 찬동할 수밖에 없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편협한 가르침과 모범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면서 인간의 도덕을 타락시켰는지 이야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구약성경은 박해 이론의 무기고였다.” 3)

통치자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증대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내부 구성원의 믿음이 부족하여 생긴 것으로 백성들이 믿도록, 성직자들의 권위를 통해 선전하고 백성 중 일부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의식을 통해 무마시키고 면책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터무니없는 내용을 앞세워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성직자들에게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주는 한편 신도들을 착취하는 관행을 눈감아주었습니다.

기원후 415년 3월 이들은 자신들이 채택한 기독교 교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교(異敎)’로 치부하며, 고대 문명의 보고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중세 암흑기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통치자나 가진 자는 구약성경의 내용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성직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실정이나 잘못에 대해 백성이나 신도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거나 믿음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저주를 내렸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구약성경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금상첨화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10:20에는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거나,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네가 한 말을 전파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편 28:8에 “여호와는 그들[백성]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라는 표현 또한, 왕의 신분을 백성의 힘[희생과 착취]을 빌려 구원해 주는 절대적 위치로 격상시킵니다.

또한, 로마 황제들이 임마누엘 외에 예수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고 자주 인용되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들을 신으로 부르도록 한 근거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government(정부)를 운영 또는 통치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prince)이라 할 것 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훌륭한 조연자, 전지전능한 신(여호와),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자라 불릴 것이다. 그의 정부(국가)는 계속 커질 것이며 그곳에서의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다’]”(이사야 9:6-7). 로마 황제가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왕뿐만이 아니라 신으로 부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십일조:

최초로 십일조라는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20에 ‘아브람[아브라함의 개명 전 이름]이 그 얻은 것에서 십 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그 땅의 주인 살렘 왕에게 바친 것으로 이것이 십일조 세금의 기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십일조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10%를 교회에 납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8:21-29의 내용에 따르면, 모세는 레위족을 제외한 이스라엘 열한 부족으로부터 십일조를 거둔 후, 십일조의 10%를 여호와의 몫으로 정하고, 이를 레위족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십일조는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이고, 이를 징수한 후 여기에서 10%를 떼어 유대교와 관련된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레위족에게 경비로 사용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도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모세 이후 기원전 400년대나 그 이후까지도 이 기준이 지속적으로 준수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개신교는 신도들이 봉급으로 받거나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낸 세금의 10% 이상을 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 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느헤미야 10:38)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세금의 일종이고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 같이, 십일조도 당시에 국가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산물의 10%를 십일조라는 세금으로 걷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10%를 세금으로 걷었기에 십일조가 10%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만약 20%를 걷으면 십일조는 20%가 되었을 것이고 5%를 걷으면 십일조가 5%가 되는 식으로, 십일조는 그냥 십일조라는 이름의 세금일 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율에 관계없이 그냥 부가가치세로 불리고, 소득세가 그 세율에 상관없이 소득세로 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교 행사를 관장하는 레위족에게 전달되는 금액을 기술한 부분을 보면 십일조의 10분의 1로 명기되어 있고, 구약성경 내에 세금(tax)이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23:35와 다니엘서 11:20에만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표현된 세금은 이집트 왕에게 바치는 공물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세금징수원(tax collector)을 언급한 것은 이 책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세금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금인 십일조가 아니라, 봉건 왕국인 헤롯 왕국이 로마 제국에 바치던 조공(tribute)이었기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서 내에서 십일조는 마태복음23:23, 누가복음 11:42과 누가복음 18:12 총 세 번 언급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마태복음 23:23)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 왕국에 십일조를 내지만 근본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종교 집단에 내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이 세금의 10%를 의미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원칙입니다.

구약성경을 믿거나 구약성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종교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굴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의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로 인류의 평화를 추구해야 할 종교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을 부추긴 셈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종교들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세를 확보하고 키우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기회를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만들고 이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경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류는 불운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오류, 변덕이 심한 여호와의 그릇된 계율, 혐오스럽고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대 민족의 신화인 구약성경을 성스러운 책이라고 귀중한 자녀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읽거나 믿으라고 종용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우리 모두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1) 영광 영, 김병윤, ㈜두레스 경영연구소, 2010: 364

2) 신의 위대한 질문, 배철현, 21세기북스, 2015: 21

3) 일상적 폭력 폭력적 종교, 이종록, 쿤란출판사, 2017: 379, John Bagnell Bury, *A History of Freedom of Thought*, 박흥규 옮김, 《사상의 자유의 역사》(서울: 바오출판사), 2006: 66